

탑 용어에 대한 근본 고찰 및 제안

-인도 스투파에서부터 한국 석탑으로의 변환을 바탕으로-

이 희 봉*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주제어: 탑용어, 석탑, 스투파, 복발, 기단, 상륜부, 요도, 산개, 찰주

1. 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의 경배 중심 스투파는 한국 사찰에서 한국식 석탑으로 정착된다. 탑에 대한 연구는 일정 때 일본인 연구자들과 40세에 요절한 우현 고유섭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까지 활발하게 이어오지만 탑을 지칭하는 기본 학술용어 자체는 별다른 의심없이 당시의 용어가 현재까지 건축사와 미술사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언어란 인간 주위의 세상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한번 제정된 용어는 단순히 언어 표기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거꾸로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일정 때 정착된 탑 용어는 상당부분 근본적으로 잘못 제정되어 탑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특히 학문 연구에서 학술용어 자체는 지칭하는 바가 명확해야만 하는바, 본 논문에서는 인도 스투파의 원 뜻과 달리 오역되어 제정된 바를 바로잡고자 한다.

스투파 지칭 용어는 인도의 불경이 A.D.3세기경부터 수세기에 걸쳐 중국으로 꾸준히 번역

되면서 옮겨진다. 경전의 인도 범어는 인도승과 구법승에 의해 音譯과 意譯을 거쳐 한자어로 옮겨지게 되는데, 한 문화권의 언어가 다른 문화권으로 완전 번역 되기는 쉽지 않다. 오해와 함께 도입될 수밖에 없고, 종교로서의 불교 또한 중국 도입기에는 기존 도교 바탕으로 수용한 格義불교로서 불상은 기존 틀의 사당의 신상으로 이해하게 된다.²⁾

20세기 초 한자문화권 학문의 선행 일본인 연구자들이 경전의 탑 관련 한자어를 바탕으로 인도 스투파와 동북아시아 탑의 학술용어를 정착시킨다. 그러나 애당초 불교 전파 시 한역 경전 자체의 오역 때문임이 일차 원인이지만, 천오백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인도에서의 스투파가 변형되어 원래의 형태와 의미를 알기 어렵게 된 상태에서 출발했음이 간과되었다. 두 문화권을 거쳐 번역된 탑 관련 경전의 한자 용어는 원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준다. 이를테면 Buddha의 음역 ‘부도’도 한자로 浮圖, 浮屠, 佛圖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시대별로 부처, 불상, 탑, 절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

* 교신저자, 이메일: hblee@cau.ac.kr

1) 鎌田茂雄, 정순일 역, 「중국불교사」, 49쪽

되며, 한국에서는 스님의 사리 유골탑 스투파로 굳어진다.

한편 식민지 시대 주로 영국인들에 의해 시작된 스투파 포함 인도학 연구의 모든 영어 학술용어는 쉬운 일상용어로 되어있다. 그러나 동아시아권에서 경전중심의 죽은 漢字 古語를 기본 학술 용어로 채택한 결과 ‘전문가집단 방언’(jargon)화 되어 현대에서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전문가 방언은 보통 일반인에 대하여 그 집단의 권력 유지 수단이 되므로 불통 폐해에 따른 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완고히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대부분 학문이 그렇듯이 부끄럽게도 원조 일본인 연구자가 남겨준 잘못된 용어가 근 백년 가까이 아무런 검증없이, 또한 우리가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 잔재가 학술용어로 아직 그대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관행으로 굳어진 학술용어의 개정은 한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학계에서 의식이 공유될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학자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던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데에 불편함과 거부감이 동시에 존재할 것이나 문제의 본질은 학문상 만약 올바르지 않다면 익숙한 용어라도 미련 없이 버려야 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기존 굳어진 관행의 부적합한 전문가방언의 탑 학술용어를 불교 원래의 인도 스투파의 근본 의미를 바탕으로 검증하여 현대에 통용되는 보편적 한국어로 바로잡아 옮기는 것이다.²⁾

연구 방법으로서 인도 스투파에 대한 현지 답사 관찰을 기본으로 하고,³⁾ 스투파의 원래

2) 국사학계에서는 십수년 전에 이미 일본인 연구자가 창시한 관행의 어려운 한자용어를 쉬운 한국어로 바꾸었다. 이를테면 櫛目紋(줄목문)토기->빗살무늬토기, 堅穴地(수혈지)->움집터, 打製(타제)石器->맨석기, 그 외 짝개, 굽개, 자르개, 찌르개

3) 본 논문의 사진은 전부 현지답사 시 저자가 직접 촬영 건축역사연구 제19권 4호 통권71호 2010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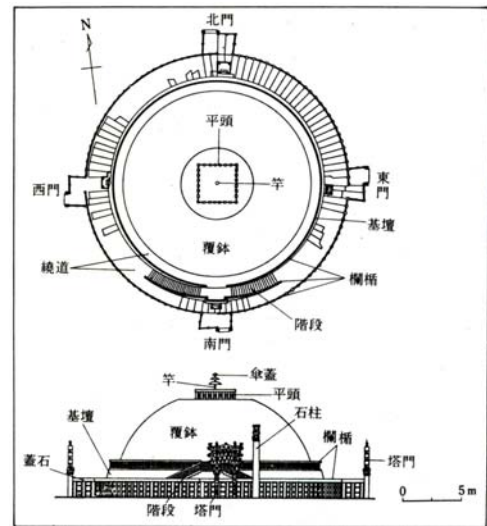
의미와 범어 용어와 영어권 학술 용어, 경전 번역 한자 용어, 일본인 제정 용어, 현재 중국의 고건축 한자 용어를 상호 비교 검토한다.

2. 기존 탑 용어 고찰

대부분의 한국 탑 연구의 첫 도입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조 인도 스투파의 한자 번역 용어를 기본으로 검토하여, 인도 스투파의 원 형태와 의미에 부합되게 작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기존 정착된 한국 탑의 학



<그림 1> 산치 대스투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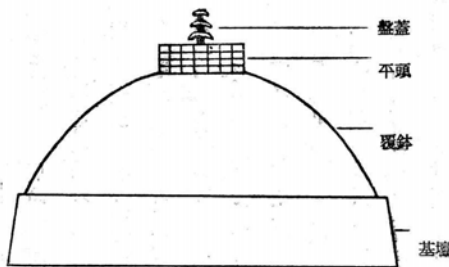


<그림 2> 관행의 일본인 번역 산치 대스투파 원조 도면

영한 것으로 그림 설명에 저작표시 ©로 표기한다. (그림 7, 14, 19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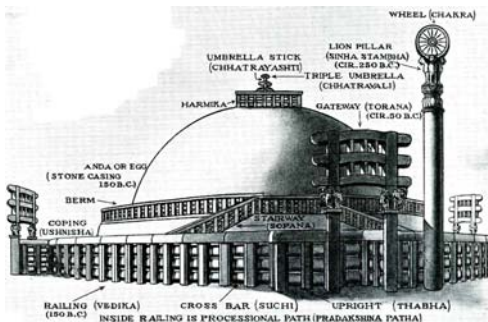
슬용어와 비교한다. 한국 탑에는 없고 인도 스투파에만 있는 형태 명칭과, 인도 스투파에서 기원하는 한국 탑의 형태 명칭을 구분 검토한다.

국내 대부분의 탑 연구에서 일본인이 작성한 문체의 산치 대스투파(그림1) 도면이 탑 용어 제정의 원본으로서(그림2) 지금도 여전히 규범으로 사용된다.⁴⁾ 입면상 기단부, 복발부,



<그림 3> 고유섭의 스투파 그림과 명칭 용어 (『韓國美術史 及 美學論叢』 22쪽)

상륜부의 3단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인 탑 연구 선구자 우현 고유섭도 그 용어에 그대로 따른다.(그림3)



<그림 4> P.브라운의 산치 대스투파 그림과 용어

한편, 본격적 인도 건축사의 사실상 시조 P. 브라운은 산치 대스투파의 개략도를 그리고 용어를 정리한다.⁵⁾ 범어(梵語)⁶⁾ 원어와 영어 번

역 용어를 함께 적는데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 용어는 현재에도 통용되는 알기 쉬운 일상어로 되어있다.(그림4)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원전 도면의 일본인 작성자가 직접 가서 스투파 실물을 체험해보지 않고 영어권의 도면에다가 글자만 한자어로 번역했다고 추정되는데, 그림으로써 형태와 용도의 이해와 명칭에서의 오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1. 복발(覆鉢)

인도 스투파 외형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둥그런 반구형 혹은 구형의 몸체는 복발이라 한자 번역되며, 한국 석탑 상부에 축소된 형태로 올라앉는다.

‘탑파(塔婆)’나 ‘탑(塔)’은 범어 stupa, tope, 또는 thupa의 소리를 옮긴 단어이지만 ‘복발(覆鉢)’은 형상을 옮긴 단어이다. 언어 ‘복발’의 ‘뒤엎어 놓은 공양 밥그릇’ 개념은 원조 인도에서는 물론 없고 서양권에서도 전혀 쓰지 않는 한중일 한자어권만의 용어이다. 원어는 알(egg)의 범어 ‘안다(anda)’이며 초기 영국인부터 현재까지 서양 인도학연구자들은 원어 ‘anda’로, 때로는 영어식 번역 ‘돔(dome)’으로 표기해왔다.

부처 입멸 후 B.C. 3세기 아소카왕이 그의 제국에 신성한 승배 기념물로서 부처 유골 무덤을 대대적으로 보급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스투파의 내부 중심의 하부 또는 정상부에 묻어 모신 부처님 유골은(sarira) 씨앗으로서의 ‘알’인 썸이고, ‘안다’는 최외함 성격의 ‘속 알을 감싼 바깥 알’인 썸이고, 신성한

4) 영어권 원 도면에 일본어 번역 표기한 도면인데, 국내 연구자들이 출처 인용 없이 계속 사용하여 일본인 원 작성자를 찾지 못했다.

5)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Buddhist and Hindu*, p.28, 1942/1971

6) 범어(梵語): Sanskrit어. 인도 불교의 중국 한자 번역 원어, 죽은 고어가 아니라 일부 현대 브라만 계층이 모국어로 사용. ‘梵’은 ‘Brahman’ 번역어, 『위키백과사전』

부처님 몸체를 상징한다. 힌두 신전 최내부 지성소인 ‘자궁 방’ ‘가르바그리하’(garbagriha)와 근원적으로 같은 의미이다. 스투파 속에 묻은 사리 유골은 ‘자궁 속의 알’이며⁷⁾ 속 알을 품은 걸 알 ‘안다’는 차후 무한히 성장하여 피어날 물 보라문양, 닝쿨문양으로, 또 늘어뜨린 술로 고이 감싸서 장엄되는 스투파의 핵심 조형물이다.



<그림 5> 인도 스투파의 球형 복발 담나르 외부굴 ©

평지 축적봉분형 스투파에서 알로서의 안다는 반구 돔 형태로 정착된다. 그 이유는 봉분 무덤에서 출발하거나와 또한 쌓기 방법으로서는 구의 하반구 곡면을 축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암석 파내기로 조성된 대부분의 석



<그림 6> 복발 상세- 실상사 동탑 상부 - 노반, 복발, 양화, 보륜 ©

굴 차이타 속의 스투파 형상은 원 의미 알에 가깝게 거의 球形이 회복된다.(그림5)⁸⁾

또한 한국 석탑 상부에 놓이는 ‘복발’은 약간 납작하지만 거의 球形이다.(그림6) 한편 승려의 부도에서는 종종 인도 스투파의 원형에 가깝게 구형 몸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그림7)⁹⁾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알’이 ‘뒤엎은 밥그릇’[발우(鉢盂)]으로 둔갑한 시작은 현장법사에서 비롯된다. 현장의 「대당서역기」 중 트라푸라성과 발리카성 항목에서, 석가의 설법을 들은 두 장자가 본국에 돌아가서 공양예정하는 방법을 물은즉, 가사를 네모로 접어 깔고 “그 위에 밥그릇을 얹어[覆鉢] 스투파를 만들라”는 답을 듣고 귀향하여 같은 형상의 최초 스투파를 건립한다는 구절이 나온다.¹⁰⁾ 그 후 한자문화권 경전에서 범어 ‘안다’를 ‘복발’로 호칭하게 되고 급기야 선행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학술용어로까지 정착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무비판적으로 계속 이어온다.



<그림 7> 정토사 흥법대사 부도 복발

그러나 형상을 빗대어 묘사하는 ‘복발’은 당시 인도 내부의 원 의미를 몰랐던 외부관찰자 여행객의 용어에 불과하다. 語義상 형태를 마치 밥그릇 얹어놓은 것처럼 생겼다는 ‘복발형’이라 묘사하는 것은 그런대로 받아들일 수도

7) Adrian Snodgrass, *The Symbolism of the Stupa*, p.189

8) 이희봉,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 2009. 12, 119쪽, 표1 참조

9) 사진출처: 문화재정보, www.cha.go.kr/unisearch

10) 현장, 권덕주 역, 「大唐西域記」, 38쪽

있지만 ‘알’을 ‘복발’이라고 곧바로 지칭하는 것은 불교교리에 맞지 않는 완벽한 오류이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복발이란 용어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성한 탑에 밥그릇을, 그것도 뒤엎어 올려놓아 모시게 되는 우매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더구나 부처님 몸체를 상징하는 신성한 스투파 ‘알’¹¹⁾ 기껏 밥그릇으로 퇴화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¹²⁾

현장의 서역기 기사를 문헌학적으로 비판하면 인도를 방문한 A.D. 7세기 초반은 이미 불교가 소승 대승을 지나 밀교화, 힌두화하여 쇠퇴하던 시기인데, 본디 석가는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금욕하며 명상을 통하여 해탈하는 가르침에 치중하였었고, 무엇보다도 사물 대상을 숭배하는 당시 힌두적인 행위를 금하였었다. 불교의 스투파 숭배는 석가 입멸 훨씬 후에 재가신자들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석가가 스투파 만드는 방법을 직접 말했다는 기사는 후세에 꾸민 얘기를 현장이 옮겨 적었을 가능성이 크다.¹³⁾

더구나 불교에서 밥그릇을 뒤엎는 복발 행위는 불경스러운 행위이다. ‘覆鉢’은 ‘覆鉢行’이라고도 부르는 남전 대장경(南傳大藏經)에 기초를 둔 승려의 최고로 심각한 항의 형태로서, 최근에는 미얀마 좌익 군사정권에 항의하는 승려들의 비폭력 민주화 데모 운동의 하나였다.¹⁴⁾

즉, 신성한 부처님 몸을 불경스럽게도 밥통 같이 ‘밥통’(중국어 飯桶)으로 바꾸어, 그것도

뒤엎어서 탑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오역에서 비롯된 잘못된 용어이므로 탑의 오랜 관행 학술용어 ‘복발’은 오늘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대안용어로서 인도의 반구형 및 구형 스투파를 지칭, 범어 ‘안다’라고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한국 석탑에서는 번역하여 원 뜻에 맞게 ‘알’의 한자어 ‘卵’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다만 외자인 탓에 정보소통상 여유도(redundancy)를 두고, 또 불교로 한정하여 ‘불교에서의 알’ 또는 ‘부처님 알’ 뜻의 ‘불란’(佛卵)으로 제안한다.

불란은 부처님의 분신 유골을 묻은 차후 化生할 잠재태로서 卵生을 나타낸다. 우리 가야, 신라의 난생설화는 남방문화 계열이며 인도와의 연관가능성이 크다.

2-2. 기단(基壇)

인도의 돛형 스투파에서의 아주 잘못된 번역어 ‘기단’은 범어 원어 ‘메디’(medhi)로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탑돌이 경배는 신성 구역임을 나타내는 울타리 난간 안의 지상에서 할 수도 있지만, 스투파 몸체 상층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할 수도 있다. 상층 탑돌이를 하기위한 용도의 스투파 돔의 어긋난 아래 부분이 메디이다.(그림2 및 4) 고유섭 그림에서 보면, 용도를 알지 못하고 단지 돔 구조의 상하부를 구분하는 단선으로 표현되었음을 볼 수 있다.(그림3) 한편 P.브라운은 ‘발디덤 통로’ 뜻의 영어 ‘berm’으로 정확히 표기한다.(그림4) 서양권에서는 자기네 돔 건축 구조의 하부를 나타내는 원통부 드럼에 가까워 인도학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drum’으로 표기한다.

일본인 선행 탑 연구자들이 명명하고 그 후 한국 연구자들이 받아들여 온 탑의 ‘기단’은 건축용어 ‘기단’과는 전혀 다르다. 동북아시아 목조건축에서의 기단이나 그리스 신전에서의

11) Adrian Snodgrass, 앞 글 360-61쪽

12) 공양 밥그릇은 스님의 소유물인 가사장삼, 염주와 더불어 경외시 되기는 하지만, 신성한 부처님 몸체 ‘알’이 ‘밥그릇’으로 둔갑될 수는 없다.

13) 이희봉, 앞글 105쪽

14) 우리말 “편을 엮는다.”와 비슷한 의미인 ‘覆鉢’을 구글 검색하면 승려 데모가 많이 나온다. 예, www.16.plala.or.jp/southasia-ua.2007.9.26

기단은(stylobate +stereobate) 본 건물을 올려 놓기 위한 별개의 바닥 구조물이지만, 산치 스투파에서는 돔과 일체가 되는 아랫부분에 해당한다. 서양권 인도학 연구자들이 건축구조물에서 사용되는 바닥 단 의미의 ‘기단’이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데 오로지 일본인 연구자가 임의로 오해해서 붙이게 되었고 지금도 이 오류는 한국에서 학술용어로 굳어져 있다.



<그림 8> 바자 석굴 스투파, 돔+드럼 ©

본 논문에서는 인도의 돔형 또는 구형 스투파의 아랫부분 메디를 지칭할 때 영어권 용어이면서 현재 한국 통용 외래어인 ‘드럼’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한자어로 번역하여 ‘원통부’(圓筒部)로 제안한다.



<그림 9> 길어진 원통부 나식 석굴 ©

한편 일본인 연구자가 드럼을 ‘고동부’(鼓胴部) 즉 ‘북 몸통’으로 번역하여 통용되고 있다.¹⁵⁾ 영어 ‘drum’은 ①북, ②원통형 용기, 즉 드럼통의 뜻이 있는데, 스투파와 아무 관련없는 ‘북’으로 오역된 것이므로 ‘고동부’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축적봉분형 대형 스투파에서 드럼은 돔 상

15)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역 『인도미술사』, 다할미디어, 124, 127쪽, 1999

층 탑돌이를 위한 일체식이나, 크기가 작아진 석굴 차이타 스투파에서는 상부 탑돌이는 할 수 없으므로 점차 구형 안다를 올려놓는 별도의 ‘대좌’로 변한다.(그림8)

인도 스투파 원통부는 점차 길어지고 높아지며(그림9), 점차 층층의 떠나 층층 단으로 발전한다.(그림10) 부처님 알을 모신 원통부 단은 바그 석굴에서처럼 팔각대좌 위에 2중으로 다시 모셔지기도 한다.(그림11)¹⁶⁾

특히 간다라 지역의 축적봉분형 대 스투파들은 별도의 넓고 높은 사각 받침단 플랫폼 위에 원통부의 일반적 스투파가 올라앉는다.(그림12) 사각 받침단은 조각 돌 버팀기 등 모습까지 갖춘, 구조상 건축의 기단에 더 가깝다. 만약 스투파의 아랫부분 원통부를 한자권에서처럼 기단이라 호칭해버리면 정작 간다라 스투파에서와 같은 기단형 사각받침단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¹⁷⁾



<그림 10> 층층대좌화한 원통부, 간다라 모라모라 두 소스투파 ©



<그림 11> 팔각대좌 위 원통부, 바그 스투파 1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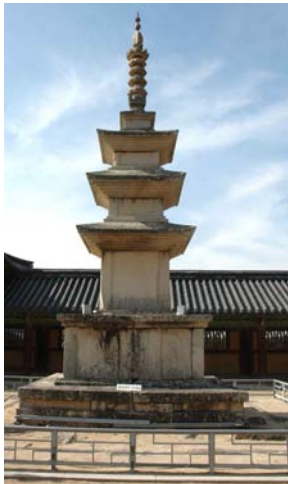
16) 이희봉, 앞 글 114, 118 및 119쪽 표1

17) 천득염, 『인도 시원 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1993. 12 에서 “기단은 간다라 지방에서는 ‘건축물 기단형식’으로 변한다.”(96쪽) “후대로 내려오면서 기단 외곽에 있는 원형의 단은 방향의 넓은 단(platform)으로 변한다. 기단 외곽의 이 단을 탑의 일부로 보아야



<그림 12> 사각 기단형 대좌+원통부 스투파, 간다라 탁실라 모라모라두 사원 ©

인도스투파에서 원통부, 즉 소위 기단은 구조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층층의 띠돌림과 처마를 통하여 겹겹 층층의 모심으로 발전한다. 즉 ‘기단’은 구조체 기단이 아니라 ‘모심의 대좌’이다.



<그림 13> 불국사 석가탑 이중모심의 대좌 ©

한국 석탑 하부를 지칭하는 ‘기단’이라는 학술용어는 목조건축에서부터 온 구조체로 볼 때는 기단일 수 있으나 원 스투파 의미체로 볼 때는 모심을 위한 ‘대좌’(臺座)이다. 특히 신라 정형석탑의 특성중 하나로 꼽는, ‘이중기단’이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이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없어 기단이라는 말과 다소 혼동이 된다.”(97쪽)

라는 호칭은 지나치게 건축물 구조체에 편향된 언급이다. 더구나 석탑에서 도입했다고 하는 원본으로서의 전통 목조건축 기단은 단층에 불과하다. 석탑의 이중기단은 구조방식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대형 목탑에서는 구조체 중심의 기단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으나 석탑에서는 전혀 다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인도 스투파의 원통부가 길어지고 층층화하여 대좌화한 연장선상에서, 신라석탑의 소위 ‘이중기단’을 ‘겹겹 높이 모심’을 위한 ‘이중대좌’로 봄이 더 타당하다.(그림 13) 석탑의 대좌를 불상이 놓이는 수미좌형 대좌와 구분하려면, 기존 석탑의 ‘기단’은 ‘기단형 대좌’로 호칭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기단으로 불리는 탑의 대좌와 불상 대좌는 본래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서 개성 흥국사탑, 철원 도피안사탑과 같이 정확히 ‘수미좌형 대좌’의 석탑도 존재한다.(그림 14)¹⁸⁾



<그림 14> 수미좌형 대좌 석탑, 개성 흥국사탑

2-3. 산개(傘蓋)

범어 원어 ‘차트라’(chattrā)는 인도에서 왕처럼 높은 신분에게 시종이 썩워주는 햇볕가리개로서 고귀함 자체의 상징물화 한다. 영어권 용어는 ‘parasol’ 또는 ‘umbrella’로서 돔의 제일 꼭대기에 씌운 원반을 나타낸다. 스투파 정 중앙 꼭대기와 마찬가지로 신성한 나무 꼭대기 및 범륜의 꼭대기에도 씌워진다.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죽은 한자어 ‘산개’ 대신 한국 전

18) 그림출처 cafe.daum.net/paintzone

통용어이며 동시에 쉬운 일상 현대용어인 ‘양산’(陽傘)으로 제안한다. 인도 스투파 양산은 단층이거나 혹은 위로 가며 점점 작아지며 층층 원반으로 솟는다.(그림15)

인도 스투파의 무장식 순 원반은 한국 탑상부에서 원반 마구리에 꽃장식을 화려하게 한 층층 ‘보륜’과 최상층 덮개인 ‘보개’로 마감되어 씌워진다.(그림 6) 고유섭 그림에는 산개가 ‘반개’(盤蓋)라고 표기되어있다.(그림 3) 그런데 산개의 뚜껑 ‘蓋’자는 상형 한자 ‘산’(傘)이 이미 위를 덮는다는 형태를 가지



<그림 15> 3층 양산, 칸헤리 석굴 부조 스투파 ©

고 있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중복 단어이다. 양산에 수반되어 원반을 끼우는 수직 막대기를 ‘산간’(傘竿)이라 호칭하는데,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의 전문가 방언으로 남아있다. 범어 ‘야쉬티(yashti)’로서 우주 중심기둥을 상징하는데, 브라운이 호칭한 영어 ‘umbrella stick’의(그림4) 뜻 그대로, 스투파의 ‘산간’은 알기 쉬운 현대어 ‘양산대’ 혹은 ‘양산기둥’ 혹은 한자어 ‘양산주(陽傘柱)’로 제안한다.

한국 석탑 상부의 양산 형태는 자그마한 직경의 원반 ‘보륜’으로 축소 퇴화되어 원래의 햇볕가리개 양산 의미는 잃어버렸다. 양산기둥 또한 일견 양산과 무관하게 찰간(刹竿) 또는 찰주(刹柱)에 자리를 내 주었다.

한편 ‘사찰(寺刹)’의 한자어 ‘찰(刹)’은 오래 전 인도로부터 중국으로의 초기 불교 도입시부터, 양산의 범어 ‘chattrā’의 음역 ‘찰다라’(刹

多羅: 찰의 중국발음은 차)의 간략 호칭으로 통용되어왔다.¹⁹⁾ 절을寺와 刹 즉 ‘양산’과의 결합으로 부를 만큼 양산이 곧 절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사찰’은 초기 인도에서 스투파가 곧 불교 사원 자체였던 원래의 불교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언어이다. 언어 ‘사찰’은 중국 불교 초기 절을 형태상 우뚝 솟은 塔과 觀音에서 유래된 건물 寺가 결합한 ‘塔寺’라 불렀던 것과 동일한 언어이다. 즉 언어 ‘刹’ 즉 ‘양산’이 탑의 여타 속성을 추상하여 탑을 곧바로 대변한다. 그런데 한국어 사전에서조차 ‘찰’의 원의미를 잃어버린 채 보편 언어 ‘사찰’을 단순히 ‘절’의 높임말 정도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刹’과 ‘傘’은 완전 같은 대상 ‘양산’의 音譯과 意譯의 차이뿐인데, 오늘날 한국에서 아무 관련없이 마치 별개의 언어처럼 사용된다. 따라서 한국 탑에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발음 기호로만 사용되는 ‘찰주’ 대신 원 의미에 맞게 ‘양산기둥’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오랜 세월이 흘러 어원을 잃어버린 사찰의 刹자와 탑의 찰주 刹자는 같은 글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말 발음 ‘찰주’의 흔히 쓰는 한자표기 ‘마찰 찰’ 擦柱’는 근거없는 오자임이 분명하므로²⁰⁾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2-4. 상륜부(相輪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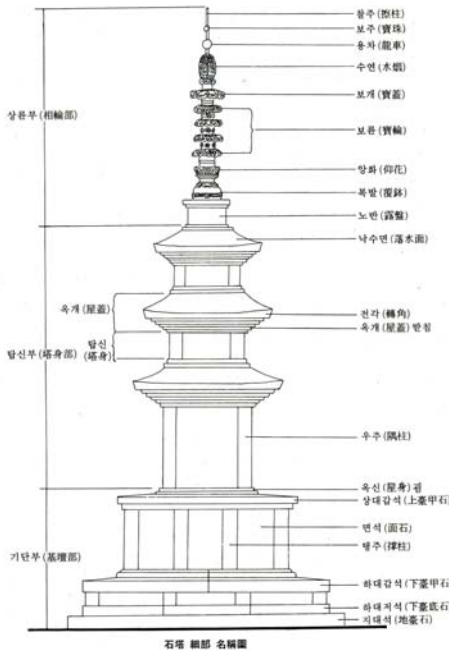
한국 탑의 탑신 위 전체를 통째로 상륜부라 지칭하는 것이 보편적 관행으로 통용되나 원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용어이다.²¹⁾ 한자어

19) 「在線新華字典」. xh.5156edu.com. 한편 ‘制多羅’, ‘差多羅’, ‘紇差怛羅’로도 번역되었다. (『中國古建築 述語辭典』 384쪽). 또한 李允錫 저 이상해 외 역, 『중국 고전 건축의 원리』 402 쪽에서 확인 가능

20) 고유섭이 ‘擦柱’ 표기의 원조로 보인다. 감은사지 석탑 글, 『한국탑과의 연구』, 174쪽

21) 그림 16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탑입면도 그림은 고유섭에서부터 대부분의 탑 연구 책에 반복하여 나타나며 기존 한국 탑용어의 규범이 된다. 장충식, 『신라 석탑연구』 62쪽 석탑 세부명칭도에서 가져옴.

‘모양 相, 바퀴 輪’의 ‘상륜부’라는 언어는 글자 그대로 바퀴 모양의 양산(parasol)만 가리켜야 한다. 인도 스투파의 원반 바퀴 모양의 단일 혹은 층층 겹 양산은 한국 석탑 꼭대기에 도입된다. 인도 스투파의 멋진 양산과는 달리 원반 마구리에 꽃장식된 층층 ‘보륜’과 제일 위 ‘보개’로 마감된다. 한국 석탑 꼭대기에 인도 스투파 형태가 그대로 축소되어 재현되는 바, 그 중 노반, 복발, 양화, 수연, 보주를 제외하고 원반에 해당하는 ‘보륜+보개’만 語義상 ‘相輪部’로 호칭되어야 한다.(그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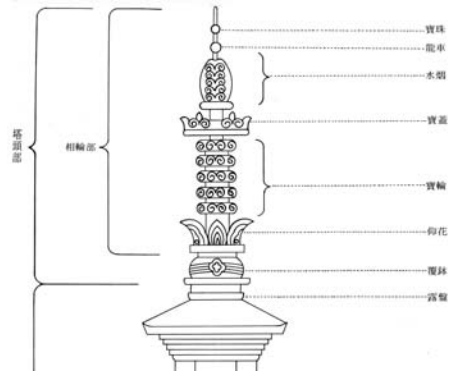


<그림 16> 탑 입면도 상륜부 오류

대다수 한국건축사 초보 연구자들이 相輪部를 ‘上輪部’로 혼동하는 바와 같이 ‘윗 상 자, 上’이 더 의미에 와 닿으므로 탑신 위 탑 꼭대기 전체를 가리킬 때 현재의 명백한 오류인 기존 相輪部 용어를 대체하여 ‘**탑상부**’(塔上部)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아니면 차선책으로서, 잘 사용되지 않는 기존

에 있는 ‘塔頭部’ 용어라도 가져와야 할 것이다.(그림17)²²⁾ 탑의 꼭대기를 ‘위[上]로 볼 것인가 ‘머리[頭]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위’가 더 인식하기 쉬워 보인다. 어쨌든 탑신 상부를 통째로 지칭하려면, ‘상륜부’라는 기존 오류 용어는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상륜은 글자그대로 바퀴만을 지칭하도록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7> 탑두부 호칭 (진홍섭)
(여기서도 순 상륜만이 아닌 아래의 양화, 위의 수연, 용차, 보주까지도 전부 포함 상륜부로 호칭하는 오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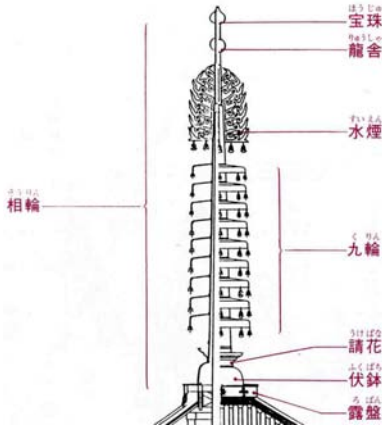
‘상륜’ 용어 오류의 원조 일본에서는 지금도 탑상부 전체를 상륜으로 잘못 지칭하고 있다. (그림18) 즉 형태 어의상 바퀴 구륜(九輪)만 상륜에 해당하나 노반, 복발, 수연, 보주를 통째로 상륜이라 지칭한다. 즉 바퀴가 아닌 것을 바퀴라고 우기는 잘못된 관행이 지금도 무심하게 지속되고 있다.²³⁾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탑을 입면상 세 부분 탑기(塔基)-탑신(塔身)-탑정(塔頂)으로 나누어 호칭하는 것이 보편적이다.²⁴⁾ 즉, 일본과는 달

22) 진홍섭 편, 『국보 12: 탑파2』, 예경산업사, 181쪽, 명칭도 그림

23) 中川 武 편,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262쪽

24) 예, 『中國古建築 述語辭典』, 465쪽 및 구글 검색 塔基 塔身 塔頂을 통하여 중국탑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일본탑의 상륜 오류 호칭, 제호사(醍醐寺) 오중탑

리 본 논문에서의 ‘탑상부’를 형태와 언어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塔頂’으로 잘 호칭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학계에 편입된 결과 명백한 오류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다음으로 양산이 중국에서 ‘바퀴’로 바뀐 ‘相輪’ 자체를 검토한다. ‘바퀴’는 범어 원어 ‘차크라’(chakra)로서 인도문화에서 고대로부터 중요 상징으로 등장해왔다. 원래 비슈뉴 신이 왼손에 들고 있는 절대 무기이다. 특히 아소카왕은 제국 곳곳에 ‘진리의 바퀴’(wheel of law) 즉 범어 ‘dharma-chakra’, 한자 번역어로 ‘법륜(法輪)’을 모신 돌기둥을 세운다. 지금은 부서져 기둥만 남았으나 산치탑 남측 탑문 옆에도 서있었고(그림4 우측) 첫 설법한 사라나트 박물관에 4사자와 4법륜의 기둥 상부가 온전히 보존되어있다.(그림19)²⁵⁾ 법륜은 현 인도 국기 한가운데의 국가 문장이 되었다.²⁶⁾ ‘바퀴를 돌리는 자’(chakravartin) 즉 막강 전능한

25) 그림출처: R. Craven, *Indian Art: A Concise History*. p.34

26) ‘달마’는 불교에서 불교진리로 사용되지만 힌두에서 윤리, 의무, 양속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아소카왕의 법륜은 불교 상징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이념도, 또 왕의 정치 이념도 포함한다.

전륜왕(轉輪王)으로서의 아소카 왕의 상징은 부처님의 상징으로 자리를 내어준다. 법륜의 고귀함을 나타내기 위해 바퀴 정상부에 양산을 씌운 조각이 도처에 나타나듯, 바퀴와 양산은 인도에서 별개의 사물이다.(그림 20)



<그림 19> 아소카 석주 상부 4사자와 4법륜상, 사라나트박물관

인도 스투파가 중국으로 들어가 탐으로 바뀌면서 양산이 바퀴로 바뀐다. 탑상부 층층 양산은 작아지며 본래 양산의 뜻이 약화되고 ‘원륜(圓輪), 반개(盤蓋)’등을 거쳐 ‘바퀴 모양[輪相]’으로 번역된다. 이는 달마 진리의 ‘법륜 바퀴’와도 관련없는 단순 겉모양[表相] 번역으로서, 비록 한역 경전 원전에 나오는 용어라고는 스투파의 정신을 잃어버린 번역이다. 따라서 바퀴 ‘상륜’은 학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고, 대신 ‘양산’이 더 원 뜻에 충실한 용어이다.



<그림 20> 법륜과 그 꼭대기 씌운 양산, 산치 탑문 조각 ©

2-5. 난순(欄盾)

원 범어 ‘베디카(vedika)’를 연구를 선집한 일본인들이 경전에서 가져온 ‘난순’으로 번역하여 대다수 한국학자들도 따르고 있으나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다. 영어권 표기로는 단순히 ‘railing’으로서 쉬운 일상용어 ‘난간(欄干)’으로 제안한다.



<그림 21> 울난간 및 상층 난간, 산치스투파 ©

산치 스투파에는 3종류의 난간이 있다. 첫째, 신성한 스투파 외곽 주위를 둘러 실질적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난간이 있다. 원형 스투파 주위에 4방위 ‘탑문’(torana)이 포함된 ‘울난간’을 둘러 地面 탑돌이길을 만든다. 성역 경계 울타리 난간은 힌두문화의 우주목 숭배에서, 또 불교에서 석가가 그 아래에서 해탈한 보리수 숭배에서 신성한 나무를 보호하는데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둘째, 스투파 지상에서 4.3m 올라간 상부층, 즉 P. 브라운이 ‘발디담 통로’ ‘berm’이라 표기한 원통부 상부에 설치된 난간이다. 계단으로 올라가 상층 탑돌이를 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적 난간이다.(그림21 우측 상부)

셋째, 스투파 돔 꼭대기에 유골함과 그 위



<그림 22> 스투파를 둘러싼 울난간 기둥열과 장부 구멍, 아마르바티 대 스투파 ©

양산을 보호하는 축소된 또다른 형태의 성역을 나타내는 사각 울난간이 있다. 이를 초기 일본인 연구자가 ‘平頭’라고 잘못 번역한 곳이다.(그림2,3 참조)

스투파의 돌난간은 수직 기둥(범어thabha)을 촘촘히 세우고 그 사이 수평 돌 막대기(범어suchi)로 가로질러 막는다. 수평막대기는 보통 세 개로써 중력에 잘 견디게 볼록렌즈형 단면으로 깎아 장부맞춤으로 홈에 끼워넣는다.(그림22)



<그림 23> 난간의 장식 기호화- 바닥 울난간과 이중 상층 난간, 베드사 석굴 ©

인도 스투파 울난간은 석굴 차이타 스투파에서 원통부 지면과 만나는 바닥에 장식화되어 나타나다가(그림23 바닥부분) 나중에는 겹겹 떠돌림으로 단순화된다.²⁷⁾ 상층 탑돌이 난간은 오랫동안 석굴 차이타 스투파에서 스투파임을 나타내

27) 이회봉, 앞글, 115쪽

는 기호 장식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그림23 원 통부 상부 2중난간) 후에 단순 면띠화하여 난간장식이 사라진다. 간다라 스투파에서는 난간장식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한국의 석탑에서는 인도에서의 스투파 표시 기호로 정착되었던 난간장식 정보가 전혀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6. 평두(平頭)

평두는 또 하나의 일본인 초기연구자의 오류 용어이고 고유섭도 그대로 따른다. 오류의 원인으로서 현지에 가서 실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권 도면에다가 경전의 한자 번역어만 기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문제는 근 백여년전의 오류가 지금도 학계에서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24> 평두로 잘못 번역된 꼭대기 울난간, 산치 대스투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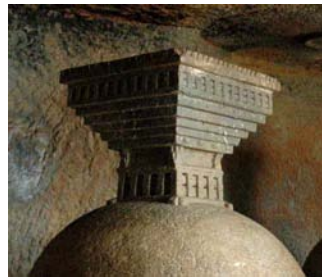
평두라고 지칭한 것은 스투파 꼭대기 유골함과 양산을 보호하는 사각 울타리 난간이다. (그림24) 지면의 원형 울난간은 실질적으로 외부의 침범을 막고 지면 탑돌이를 위한 기능을 갖지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꼭대기 울난간은 최고 높음을 지키는 심리적 상징적 보호 장치이다.

원조 관행 도면과 고유섭 도면 모두 스투파

28) 비록 경전에 나오는 용어나, 인도 경전의 초기 번역시 실물형태를 보지 못한 채 한자어로 묘사했던 한계로 인한 오류로 추정된다. 「根本設一切有部毘奈耶雜事」卷第十八, “佛言應可用輒兩重作基次安塔身上安覆鉢,隨意高下上置平頭”

상부 사물을 제대로 그리지 못하고 있다. 즉 반구 돔 위의 난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외관에서 난간 사이로 보이는 내부 유골함을 놓치고 있다. 유골함 평면을 그리지 않고 있으며(그림2) 고유섭 그림에서도 양산을 둘러싼 난간 모습이 아닌 단순 격자선으로만 그려져 있다.(그림3)

산치 스투파 꼭대기의 사각 울타리 난간 구조물을 ‘평두’라고 한자 번역하였지만, 인도 거의 모든 스투파에서 ‘평두’라는 언어 기호가 나타내는 ‘평평한 머리’의 단순 상자 형태는 거의 없다.²⁹⁾ 인도 대부분의 스투파 꼭대기 구조물, 범어 원어 ‘하미카’ (harmika)의 구성을



<그림 25> 하미카 모습, 바자 석굴 ©

보면 아래로부터 ①사각 울난간과 ②그 상부 네 귀기둥과 아치창으로 표시되는 건물 몸체와 ③제일 꼭대기 초기 인도고고학자들이 ‘tee’라고 불렀던 ‘점층 내민 역피라미트 층단 처마 구조물’³⁰⁾ 세부분이다.(그림25)

한국 탑에는 없으므로 원어 발음 그대로 ‘하미카’로 지칭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 스투파의 역피라미트 하미카는 중국 운강석굴에서부터 한국 석탑 상부의 ‘양화(仰花)’ 형태로(그림6)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층단이

29) 산치스투파와 아마르바티 관석부조 일부에만 평평하게 나타난다.

30) J. Fergusson,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p.70

간략화 되고 대신 꽃잎이 처마 대신 위로 뻗어 역피라미트를 대체한다.

하미카는 불교 이전 브라흐만 시대 불의 신 아그니 제사 제단이라는 설이 유력하며 불교 이후 사리유골함 뚜껑으로 시작 되었다고 한다.

2-7. 요도(繞道)

태양 회전 방향을 따라 돌으로써 새생명의 탄생을 가져오는 스투파 돔의 외곽 길, 범어 'pradakshina', 영어 'circumambulatory path'를 선행 일본인연구자들이 '요도'로 정착시켰다. 경전을 한자 번역하면서 탑 둘레를 도는 행위를 요잡(繞匝)이라 하여 불교 경전 용어로 남아있으나 한국 일상 현대어에서 쓰지 않는 죽은 고어이다. 오히려 성기 오줌길의 동음이어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어려운 한자어 대신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 쉽고 익숙해진 '탑돌이길'(혹은 스투파돌이길)로 제안한다. 만약 한자어로 한다면 현대 통용 언어 '선회로'(旋回路)로 제안한다.

선회로는 탑뿐만 아니라 불상에도 형성된다. 대승불교가 되면서 석굴사원에서 불상을 모신 사당방 외곽을 돌도록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파진다.³¹⁾ 한국의 사찰도 초기에는 불당 정중앙에 속에 불상을 모신 4기둥 외곽으로 '불상돌이길'이 형성되었다.³²⁾ 태양 방향 선회 행위는 현재 인도문화권에서의 힌두교 지성소 예배방식과 똑같다. 대부분의 전통 힌두사원건축 유적에서도 신전 지성소 외곽에 좁고 어두운

골목의 '지성소돌이길'이 형성된다.

인도 스투파에서의 탑돌이길은 경배를 위한 기본적 필수 형태이나, 한국 석탑에서는 외곽 바닥 돌이 깔린 '탑구'(塔區)로서 간략하게 변형되거나 퇴화된다.³³⁾ 한국 석탑에서 '탑구'라는 기존 용어는 그다지 깊은 고려 없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고유섭이 익산 미륵사지 탑을 언급하며 탑의 바깥 2-3척 떨어진 위치의 지대석을 보고 "일견하여 塔區를 구획한 듯하다."며 막연한 호칭으로 시작되어³⁴⁾ 1960년대 감은사지 보고서에서 용어로 점차 굳어진다.³⁵⁾ '탑을 둘러싼 구역'이라는 불분명한 호칭과 '그 바닥에 깔 돌'이라는 사물 위주의 지칭으로는 탑돌이라는 기본 뜻을 담지 못하고 있으므로 학술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불명확한 용어 '탑구'를 범어 pradakshina의 원 뜻에 맞게 '탑돌이길' 혹은 '선회로' 같이 행위 위주 뜻 호칭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 더하자면 전통건축에서도 사용하지 않고 탑에만 등장하는 '탱주'(撐柱)라고 지칭되는 죽은 한자 용어도 '버팀기둥' 혹은 '중간기둥'으로 호칭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통용되지 않는, 옥개석에서의 특수 한자용어 '우동'(隅棟)도 '귀마루' 또는 '내림마루'로 또는 '합각선'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3. 결론

불교 시원 인도 스투파의 형태와 근본 의미를 바탕으로 한국 탑 용어를 검토하여, 선행 연구자 일본인들이 제정한 기존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근 백여년간 이어받아온 잘못을 지적하

31) 이희봉, 「인도 불교석굴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148쪽, 2008. 8

32) 김동욱 『개정 한국건축의 역사』, 95쪽, "평면상태로 보아 불상을 모신 내부 기둥렬 바깥으로 신도들의 참배를 위한 공간과 또 그 바깥으로 참배와 관련한 용도를 위해 한 행랑을 둔 것으로 짐작된다."는 조금 복잡한 서술은 간단히 말하자면 '불상돌이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33) 강우방, 신용철, 「탑」, 139쪽, 감은사탑 탑구를 탑돌이용으로 해석한다.

34) 고유섭, 「한국탑파의 연구」, 154쪽

35) 정혜두, 장석하, 「석탑 탑구의 역할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10. 2, 93쪽

였다. 비록 당시 경전의 용어를 탑의 학술용어로 그대로 가져왔다고는 하나, 범어의 한자 번역시 스투파 본래 형태와 의미가 제대로 옮겨지지 못한 태생적 오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명백히 잘못 번역된 용어, 현대에 쓰지 않는 고어, 일본식 한자 용어를 쉬운 현대 한국 통용어로 제시한다.

1) ‘알’을 지칭하는 인도 스투파 용어 ‘안다’를, 밥그릇 ‘복발’로 오역하여 한국 탑상부에 그것도 뒤이어 모시는 불경스러운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복발을 원 의미에 맞는 뜻 언어로서 스투파 자궁속의 부처님 알 의미의 ‘불란(佛卵)’으로 제안한다.

2) 통상 용어로 사용되는 ‘상륜부(相輪部)’는 글자 그대로 보륜 보개의 양산 원반만으로 제한되어야하며, 오류를 수정하여 노반, 양화, 수연, 보주의 탑 꼭대기 전체를 ‘탑상부(塔上部)’로 제안한다. 차선으로서 기존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 ‘탑두부’라도 회복할 것을 제안한다.

3) 탑상부의 ‘相輪’의 ‘보륜(寶輪)’은 원반처럼 생겼다는 ‘양산’의 길모양 한자 번역으로서, 바퀴모양은 ‘법륜’과도 전혀 관계없는바, 인도 스투파의 원 용어 ‘양산(陽傘)’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사물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인도 스투파 꼭대기의 상징적 보호 ‘울난간’을 설부르게 ‘평두(平頭)’라 명명함은 부적합하다. 대부분 인도 스투파의 꼭대기는 결코 평평하지 않은 점층단 역피라미드형이다. 한국 탑에는 없는 형태이므로 번역하지 않고 인도범어 발음 그대로 ‘하미카’로 할 것을 제안한다.

5) 명백한 오류로서 인도 돛 스투파의 드럼 부분을 용도와 기능에 맞지 않게 ‘기단’으로 오역한 것과, 또 영어 drum을 북으로 오해하여 붙인 ‘고동부(鼓胴部)’를 수정하여 ‘원통부(圓筒部)’로 제안한다.

6) 한국 신라 정형석탑이 도입했다고 하는 목조건축에는 없는 ‘이중기단’ 호칭은 구조체보다 의미체로 보아 ‘겹 모심’의 ‘이중대좌’로 호칭함이 더 타당하며, ‘기단’은 ‘대좌(臺座)’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7) 스투파 꼭대기의 햇볕가리개 겹 고귀함의 상징 원반 ‘양산’을, 선행연구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죽은 한자어 ‘산개(傘蓋)’로 호칭해 왔음을 지적하며, 현대 보편어 ‘양산’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산간(傘竿)’을 ‘양산대’ 또는 ‘양산기둥’으로 제안한다.

또 쇠과 傘은 동일한 인도 양산의 음역과 의역 차이 뿐이므로 원의미를 잃어버린 ‘찰간’ ‘찰주’ 기존 용어도 ‘양산기둥’으로 통합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 한자어 번역 경전 족보에는 있으나 일반에게 통용되지 않고 탑연구 전문가에게만 통용되는 ‘난순’을 평이한 일상어 ‘난간’으로 제안한다.

9) 탑을 돌며 경배하는 경전의 초기 번역요 집행위의 길을 ‘요도(繞道)’라 호칭하나, 죽은 고어이므로 오랫동안 통용된 ‘탑돌이길’ 또는 ‘선회로(旋回路)’로 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불명확한 사물위주 막연한 용어 ‘탑구(塔區)’도 ‘탑돌이길’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상의 결론의 제안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한자 번역 탑 용어 대부분은 본래의 뜻을 상실한 채 발음기호 글자로만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대상과 지칭하는바가 명실상부한지 여부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근 백 여년전 고유섭과 일본인 선구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탑 연구 초석을 마련했으나, 해방 후 지금까지 후계 학자들이 오류를 찾아내거나 수정하지 못하고 답습만한 탓에 학문이 정체되고 말았다. 가장 피하여야 할 것은, 오류를 인정하지만 오랜 관행으로 익숙하므로 바꾸지 말자

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실에 어긋난 관행을 유지하지는 것은 지식의 소통을, 나아가 학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될 것이다.

[표 1] 탑 용어 제안표

인도범어	영어	기존용어	제안용어
anda	egg, dome, sphere	복발	불란
medhi	drum	기단	대좌
		고동부	원통부
chattra	parasol, umbrella	산개, 상륜보륜, 보개	양산
yashti	umbrella stick	산간, 찰주	양산대, 양산기둥
chattra+harmika	parasol+ tee	상륜부	탑상부
vedika	railing	난순	난간
harmika	tee, harmika	평두	하미카
pradakshina	circum-ambulatory path	요도, 탑구	탑돌이길, 선회로

<참고문헌>

1. 현장, 『大唐西域記』 우리출판, 1990
2. 고유섭, 『韓國美術史 及 美學論叢』, 통문관, 1972
3. 고유섭, 『한국 탑파의 연구』, 동화출판, 1975
4. 장충식, 『신라석탑연구』, 일지사, 1987
5. 진홍섭 편, 『국보 12: 탑파2』, 예경산업사
6. 강우방, 신용철, 『탑』, 솔, 2003
7. 鎌田茂雄, 정순일 역, 『중국불교사』, 경서원, 1985
8.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고정은 역, 『인도 미술사』, 다할미디어, 1999
9. Fergusson, James.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Low Price, 1910/2006

10. Snodgrass, Adrian, The Symbolism of the Stupa, Cornell Univ. Southeast Asia Program, 1985
11. Brown, Percy, Indian Architecture, Buddhist and Hindu, Traporevala, 1942/1971
12. 이희봉, 「탑의 원조 인도 스투파의 형태 해석」, 건축역사연구, 2009. 12
13. 이희봉, 「인도 불교석굴의 시원과 전개」, 건축역사연구, 2008. 08
14. 천득염, 「인도 시원 불탑의 의미론적 해석」, 건축역사연구, 1993. 12
15. www16.plala.or.jp/southasia-ua
16. 「在線新華字典」, xh.5156edu.com
17. 「中國古建築 述語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6
18. 丁福保, 「佛學大辭典」, 維基文庫 zh.wikisource.org/zh. 1922/1952
19. 中川 武 편, 「日本建築みどころ事典」, 東京堂出版, 1990
20. 김동욱, 『개정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2007
21. 정혜두, 장식하, 「석탑 탑구의 역할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10. 2

접수(2010. 6. 8)
수정(1차: 2010. 8. 4)
게재확정(2010. 8. 6)

Fundamental Examination and Renaming of the Terminology of the Buddhist Pagoda

-Based upon Conversion from Indian Stupa into Korean Pagoda-

Lee, Hee-Bong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Although scholarly terminology should have clear meanings as signs, Korean pagoda terminology has become jargon and is creating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meanings which are far from the originally intended meanings; this terminology is sometimes notated in dead language, meaning old Chinese characters, or Japanese styled Chinese characters. Nobody has asked questions on the terminology itself which has long been commonly used for a century, since the Japanese-ruling period.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error is that the Indian Buddhist scriptures in Sanskrit has been translated into Chinese with vague understanding of form and meaning of stupa since 3rd Century A.D. On the other hand, the English-language terminology, already built by Indology scholars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consists of easier language and clearer meanings.

This paper examines misunderstanding and mistranslation of the original Indian stupa terms and suggests new terminology in current, easier language.

Indian Sanskrit	English	Chinese (Meaning)	Suggestion of Current Language (Meaning)
Anda	Dome, Egg Hemisphere, Sphere	覆鉢 (upturned bowl)	불란(佛卵) (Buddhist egg)
Chattra	Parasol, Umbrella	傘蓋(covered parasol), 相輪(upper wheel), 寶輪 (jewel wheel)	양산(陽傘) (parasol)
Yashti	Umbrella Stick	傘竿 刹柱	양산대, 양산기둥 (Parasol Stick, Parasol Column)
Chattra + Harmika	Parasol + Tee	相輪部 (upper wheel part)	탑상부(塔上部) (Pagoda Summit)
Medhi	Drum	基壇 (stylobate)	대좌(臺座) (Plinth)
Vedika	Railing	欄盾	난간(欄干) (Railing)
Harmika	Tee, Stepped Inverted Pyramid	平頭(flat head)	하미카 (Harmika)
Pradakshina	Circumambulatory Path	繞道 塔區	탑돌이길, 선회로(旋回路) (Circling Road)

Keywords : Terminology, Stupa, Pagoda, Upturned Bowl, Parasol, Railing, Stylobate